

나혜석과 조르주 상드의 여성주의 세계관 비교연구

- 예술가의 소명의식을 중심으로 -

조 지 속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르주 상드와 나혜석의 예술가로서의 삶과 작품 세계를 비교해 보고, 예술가에게 있어서 소명의식과 책임감의 유무가 어떠한 차이와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두 여성은 교육과 예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관점과 소신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예술관에 있어서 두 여성은 더욱 현격한 견해차를 보여주는데, 이는 예술에 관한 작가로서의 책임감, 목적의식의 유무로 드러난다. 조르주 상드의 경우 뚜렷한 예술관을 지니고 있었고, 작가 활동초반부터 이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바 있다. 즉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 약자들의 고통을 알리고, 결국에는 젠더의 한계를 넘어서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있어 자신의 작가로서의 활동이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작가적 소명의식을 알렸다.

그러나 나혜석의 경우, 그녀의 글에서도, 혹은 그림 작품을 통해서도 그러한 목적의식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나혜석에게는 당대 주목받은 여성화가, 더구나 선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목적의식이 결여되었다. 만일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나혜석에게 예술가로서의 뚜렷한 소명의식만 있었다면, 조르주 상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세계는 물론, 예술가로 가치 있는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주제어 : 제도, 교육, 예술관, 소명의식, 책임감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프랑스 19세기 작가 조르주 상드George Sand(1804-1876)와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전후, 소위 신여성으로 불린 화가이자 작가인 나혜석(1896-1948)의, 시작은 같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온 이 두 여성의 삶을 비교해 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들과 같은 여성 예술가에게 소명의식과 책임감의 유무가 어떤 차이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같은 시작이라 함은 조르주 상드와 나혜석은 둘 다 결혼을 했었으며, 아이들이 있었고, 이혼을 했으며, 당시 여성으로는 보기 드문 사회활동, 즉 각기 작가 혹은 화가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 후 두 여성의 삶의 행보와 그 결과는 전혀 달랐다. 물론 혁명 후 19세기 프랑스와 광복전후 격동기의 한반도라는 시기적 혹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두 사람의 삶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환경 탓으로 돌리기에는 19세기 상드보다 든든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출발을 했던 100년 후 조선 여성, 나혜석의 삶은 상드에 비해 그 결과가 지독히도 절망적이고 비극적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로 활동했던 나혜석의 출발은 19세기 프랑스 여성 작가 조르주 상드의 출발보다 화려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나혜석의 화가로의 공부의 시작과 사회활동은 집안에서의 도움은 물론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까지 더해지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조르주 상드의 사회활동, 정확하게 말해서 작가로의 본격적 시작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상드는 남편과 헤어진 후 두 아이를 책임지며 온전히 가정역할을 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 독립이 필요했는데, 상드시대에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나혜석 시대만큼이나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었다.

폐하,

제 3 신분에 속한 여성은 모두 가난하게 태어납니다. 그들의 교육은 방

기되거나 잘못된 생각에 근거합니다. 열다섯 살이나 열여섯 살이 된 소녀들은 하루에 고작 5-6수를 법니다.

그들은 지참금도 없이 가난한 장인들과 결혼을 하여 혹독한 삶을 마지 못해 이어가며, 키울 능력도 없는 자식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도록 결혼하지 못하면 눈물 속에 세월을 보내게 되고 가까운 친척들에게조차 멸시를 받습니다.

폐하, 그러한 불행을 막기 위하여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행해왔던 기술과 일에서 남성들을 배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폐하, 저희는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남성의 권위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을 수단을 갖고자 합니다. (1789년)¹⁾

이 글은 제 3 신분에 속한 어느 프랑스 여성이 국왕 루이 16세에게 보낸 호소문이다. 짧은 호소문이지만 18세기말까지 여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 교육과 일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권에서 여성은 제외되어 있었다.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교육과 일은 전적으로 남성들만의 것이었고, 이에 대한 요구는 남성의 영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프랑스 여성들의 상황은 19세기에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일하는 여성에 대한 경멸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거의 극에 달했고, 나폴레옹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성은 그 권리를 더욱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남성들은 ‘여성의 일이라는 것은 남성우위의 문화에서는 멸시적 울림을 갖기 십상’²⁾이라고 말하며, 여성들 스스로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기도 했다. 어쩌다가 남성과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보수를 기대할 수 없었다.

특히 조르주 상드가 작가로 활동하던 때는 19세기 초부터, 정확히 1804년 나폴레옹 법전이 제정된 이후부터 여성의 남성에 대한 복종이 구체적으로 성

1) 제인 오스틴, 샬롯 브론테 외, 『편지』, 율가 케년 편저, 정지인 역, 이미지 박스, 서울, 2006, 252-253쪽.

2) Ibid., 240쪽 참조.

문화되어 강화된 시기였기에, 상드의 출현과 활동은 19세기 프랑스 여성사와 문학사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드의 작가로서의 출현은 남성중심의 전통의 파기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물론 상드가 작가로 활동하기 전 비록 나폴레옹은 그 모든 권력을 잃었지만, 그의 법전은 19세기 내내 그 위력을 잃지 않았다.

Pour la femme mariée et la veuve mère de famille, le Code instaure l'absolutisme marital. Nul n'ignore l'article 213.《La femme doit obéissance à son mari.》Elle doit le suivre partout. C'est lui qui fixe la résidence du couple et elle est tenue de vivre avec lui (art. 108-214). Le mari exerce un droit de contrôle sur sa correspondance. [...] L'époux peut disposer librement du salaire de sa femme.

결혼한 여자나 자녀를 둔 과부에게 있어서 나폴레옹 민법은 남편의 절대주의를 만들어낸다.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라는 213조항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부인은 어디든지 남편을 따라가야 한다. 부부의 거주지를 정하는 것은 남편이고, 여자는 남편과 살 의무가 있다 (108-214조항). 남편은 부인의 편지를 통제할 권리를 행사한다. [...] 남편은 자기 부인의 봉급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³⁾

나폴레옹에 의해 새롭게 제정된 민법전에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공적 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사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권리도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혼한 여성은 남편과 함께 살아야할 의무가 있었고, 따라서 남편과 헤어진 여성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관습적 비난과 형벌을 감수해야 했다. 그런데 19세기 새롭게 만들어진 프랑스 법조항들은 관습법에서 그대로 흡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는 ‘합법적’으로 더욱 편리하고 강력해졌다. 이러한 남성중심의 합법적 전통의 확립은 19세기 여성의 삶을

3) Maïté Albistur, Daniel Armogathe, *Histoire du Féminisme Français*, éditions des femmes, Paris, 1977, p. 241.

거의 최악으로 몰고 갔다. 이는 역시 프랑스 19세기 역사가 쥘 미슐레(1798-1874)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e[un homme] gagne trop peu,》dit-il. Quatre ou cinq fois plus que la femme, dans les métiers les plus nombreux. Lui quarante ou cinquante sous, et elle dix, comme on va le voir. [...]

Les salaires de l'homme ont reçu, je le sais, une rude secousse, principalement par l'effet de la crise métallique qui change la chaleur de l'argent. Ils remontent, mais lentement. Il faut du temps pour l'équilibre. Mais, en tenant compte de cela, la différence subsiste. La femme est encore plus frappée. C'est la viande, c'est le vin, qui sont diminués pour lui ; pour elle, c'est le pain même. Elle ne peut reculer, ni tomber davantage : un pas de plus, elle meurt.

“나는 정말 조금 벌어”, 라고 남자는 말한다. 수많은 직종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네 배에서 다섯 배는 더 버는데도 말이다. 앞으로 두고 보겠지만, 남자는 40에서 50 수를 받으면 여자는 10 수를 받는다. [...]

남자의 봉급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음을 알고는 있지만, 주로, 화폐 가치를 바꾼 금속의 위기의 결과로 인한 것이다. 봉급은 천천히 다시 오를 것이다. 다시 균형이 잡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고려해서도 차이는 여전하다. 여자는 여전히 더 타격을 입었다. 남자는 고기와 술을 못 먹게 되지만, 여자는 빵을 못 먹게 되는 것이다. 여자는 더 물러날 수도 넘어질 수도 없다.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여자는 죽기 때문이다.⁴⁾

당시 화폐개혁은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사치스러운 삶의 여유를 줄어든게 할 뿐이었지만,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치명적 위기를 맞게 했던 것이다. 인용문에서처럼 미슐레는 남성에게는 고작 투정거리정도의 문제가 여성에게는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절박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상황이 명백히 남성중심의 불평등한 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일하는 여성은 불경

4) Jules Michelet, *La Femme*, Calmann-Lévy, 1929, pp. 24-25.

하고 비천하다⁵⁾고 말했다.

이처럼 남성들은 자신들만의 철용성을 구축하고 있었고 여성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침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설사 여성이 남성의 세계에 들어간다 해도, 그 세계에서 버티고 성공해내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문학과 그러한 남성들만의 영역이었고, 따라서 평생 작가로 살았던 상드의 삶 자체가 남성들의 영역을 허물어버린 한 여성의 지속적인 대혁명이었다. 프랑스에서 19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남성작가들은 많았지만, 작가로 이름을 알린 여성은 상드가 거의 유일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힘들었던 시기였기에, 여성 작가로 유명세를 떨치던 상드의 일거수일투족은 세인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런 상드에게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⁶⁾

이러한 조르주 상드와 나혜석을 비교하게 된 이유는 그녀들이 많은 공통점

- 5) “그런데 일하는 여성이라니! 일하는 여성! 불경하고 비천한 단어, 어떤 언어도 갖지 못했고, 이 철의 시대 전에도 이해하지 못했을 단어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소위 진보를 그것만으로도 뒤흔들어 놓을 단어다.”

Mais comme *ouvrière* ! *L'ouvrière* ! mot impie, sordide, qu'aucune langue n'eut jamais, qu'aucun temps n'aurait compris avant cet âge de fer, et qui balancerait à lui seul tous nos prétendus progrès. - Ibid., p. 22.

- 6) 유명한 작가이자, 공인인 상드는 끊임없이 부탁을 받는다. 받은 엄청난 양의 편지들 가운데는 상드가 문학의 조연자 역할을 하는 작가 지망생들과 여성 독자들의 흥미진진한 우편물들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 방문객들도 찾아오는데 그 방문객들은 지지자들, 악의적인 호사기들, 잘난 체 하는 자들 혹은 방탕한 자들, 그리고 파리를 찾은 영국인들까지 상드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리스트는 어느 날 상드가 자신의 하녀로 하여금 책, 종이 봉치를 그리고 답배가 수북이 놓인 한가운데 『앵디아나』의 작가(상드 자신)처럼 행세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1855).

Écrivain connu, personnage public, Sand est constamment sollicitée. [...] Au prodigieux volume de lettres reçues, dont un passionnant courrier de lectrices et d'auteurs en herbe auxquels elle sert de conseillère littéraire, s'ajoutent les visites que sympathisants, curieux malveillants, poseurs ou prodiges entendent lui rendre, et jusqu'aux Anglais en visite à Paris. Liszt raconte comment Sand fit un jour poser sa femme de chambre en auteur d'*Indiana* au milieu de livres, de liasses de papier et de paquets de cigarettes (1855).

- Martine Reid, Bertrand Tillier, *L'ABCdaire de George Sand*, Flammarion, 1999, p. 86.

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남성들과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으며, 아이들의 엄마였으며, 이혼을 했고, 당시 사회에 이름을 알렸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종교도 같았으며, 루소를 알고 있었고, 그의 글을 즐겨 읽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혜석은 상드의 나라인 프랑스에 대한 열정적 관심과 애정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나혜석의 자전적 고백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경희」(1918)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나파룬(나폴레옹) 時代에 邑里 全 人心을 움직이게 ्ह든 스라아루 夫人(스탈부인)과 갖흔 微妙 ्ह 理解力, 饒舌 ्ह 雄辯 그리흔 機才 ्ह 사회적 인물 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 사라서 오루렌(오를레앙) 救 ्ह고 死 ्ह에 佛蘭西(프랑스)를 救해낸 잔닥크(잔 다르크) 갖흔 百折不屈의 勇進, 犧牲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⁷⁾

당시는 드물게도 프랑스에서 8개월의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었던 나혜석에게 과리는 그야말로 이상향이였다.

단발을 하고 양복을 입고, 빵이나 차를 먹고 침대에서 자고 스케치 박스를 들고 연구(아카데미)를 다니고, 책상에서 불란서말 단자(單子)를 외우고, 때로는 사랑의 꿈도 꾸어보고 장차 그림의 대가가 될 공상도 해보았다.
[...]

불란서 가정의 가족도 되어 보았다. 그 기분은 여성이요, 학생이요, 처녀로서였다. 실상 조선 여성으로서는 누리지 못할 경제상으로나 기분상 아무 장애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⁸⁾

하지만 나혜석이 경험했던 프랑스는 프랑스 여성들이 생존권을 얻기 위해 투쟁하다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고, 혹은 정신병원에 갇히는 고난의 세기를 보낸 후의 프랑스였다. 나혜석은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프랑스적 여성의 삶이 그녀들의 투쟁의 결과였다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을 간파했다. 여하간

7) 나혜석, 「경희」, 『나혜석 작품집』, 오형엽 엮음,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8, 64쪽.
- 이하「경희」라 표기.

8) 나혜석, 『백만 송이 장미』, 오상출판사, 1997, 260쪽.

프랑스는 나혜석에게 있어서는 유포피아였다. 후에 모든 것을 다 잃은 나혜석이 마지막으로 도피하고자 했던 곳도 파리였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그녀는 연애사건의 당사자였던 최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소송취하의 대가로 받은 보상을 여비삼아 자신의 마지막 삶을 프랑스에서 보내고자 하는데, 이는 자식들에게 남긴 고별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남매 아해들아! 에미를 원망치 말고, 사회제도와 도덕과 법률과 인습을 원망하라. 네 에미는 과도기의 선각자로 그 운명의 줄에 희생된 자였더니라. 후일, 외교관이 되어 파리에 오거든 네 에미의 묘를 찾아 꽃 한 송이 꽂아다오.9)

나혜석은 프랑스 파리로 경험해보았고, 스탈부인도, 잔 다르크도 알고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조르주 상드를 알지 못했다. 나혜석이 같은 여성이자, 어머니, 작가이자, 여성의 자율권을 주장해 왔던 조르주 상드의 삶을 깊이 있게 연구해 봄으로써 자신의 삶을 모색해 보았다면, 당시는 드물게도 유학과 해외여행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재능 있는 여성으로서 것처럼 비참한 말로는 겪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나혜석이 알던 스탈부인은 나폴레옹에 의해 추방을 당해 오랜 세월 망명생활을 해야 했으며, 잔 다르크는 대부분 알다시피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했지만, 같은 편 남성 군인들의 협잡과 모략으로, 적군에게 넘겨져 화형을 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두 프랑스 여성 모두 험겨운 삶의 여정을 겪어내야 했다. 그러나 조르주 상드는 달랐다. 때로는 연애 스캔들이나 혹은 복장문제 등 여러 사건들 같지 않은 사건들로 때로는 여론의 못매를 맞기는 했지만, 노년에는 장 폐색으로 영면할 때까지 ‘노앙의 할머니’로 두 손녀를 위해 동화 등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며 비교적 평안한 노후를 보냈다.

이처럼 나혜석과 조르주 상드는 열정적으로 여러 남자들과의 연애, 결혼과 이혼, 엄마, 뚜렷한 자기 주관, 작가라는 비슷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삶의 행보와 끝은 판이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그 여성들이 처했던

9) 나혜석, 『이혼고백서』, 1999, 오상, 333쪽.

국가적·시대적 상황의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단선적이고 편협한 판단이 될 것이다. 프랑스가 여성에게 마냥 관대하기만 했던 나라라도, 꼬레아가 그저 여성을 떨시만 해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니 적어도 나혜석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조선 여성들의 삶과 현저히 달랐다. 나혜석이 살던 시대는 일제강점기로 민족의 암흑기였지만, 나혜석 개인으로는 그 시대적 억압과 비극적 상황과 정면으로 맞닥뜨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시대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들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우선 제도와 관습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두 번째로 여성의 교육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예술관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자식들의 양육은 물론 자신의 도움을 원하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즐기치게 글을 써야만 했던 조르주 상드, 자기 자신만을 지키기만 하면 되었던 나혜석, 이를 통해 예술가로서의 소명의식과 목적의식의 유무가 그들의 삶과 시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도록 하겠다.

II. 제도·관습에 대한 견해

조르주 상드와 나혜석의 시대는 거의 1세기의 차이가 나지만, 그녀들이 각자 자신들의 나라와 시대에서 경험했던 제도와 관습은 거의 유사했다. 적어도 남성중심사회에서 남성들의 행동에 대해 그녀들이 느꼈던 감정은 비슷한 것이었다. 먼저 조르주 상드의 경우를 보자.

Bien que consciente du handicap de la femme, George croit à l'égalité sexuelle de l'homme et de la femme. Elle admet difficilement qu'on permette au mari des fredaines qu'on ne pardonne pas à l'épouse.

여성이라는 핸디캡을 의식하면서도, 상드는 양성평등을 믿는다. 상드는 아내를 용서받지 못하는 일탈을 남편에게는 허용된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못한다.¹⁰⁾

10) Francine Mallet, *George Sand*, Bernard Grasset, 1976, p. 177.

다음은 나혜석의 의견이다.

상대자의 불품행을 논할진대 자기 자신이 청백할 것이 당연한 일이거늘
남자라는 명목하에 이성과 놓고 자도 관계없다는 당연한 권리를 가졌으니
사회제도도 제도려니와 몰상식한 태도에는 웃음이 나왔나이다.¹¹⁾

조르주 상드와 나혜석은 여성들, 특히 아내들에게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
일탈적 행위를 남편들은 당당하게 행하고 있음을 비난했고, 이는 남성중심의
오래된 제도와 관습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유사한 경험을 통해 비슷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처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다. 상드는 평생 동안 작품들 속에서, 그리고
실제 삶을 통해 평생 자신의 신조를 서서히 실천해가고자 했다.

«Ô abominable violation des droits les plus sacrés! s'écria-t-il
intérieurement, infâme tyrannie de l'homme sur la femme! Mariage,
société, institutions, haine à vous! haine à mort! [...]»

오 가장 신성한 권리들 가운데 가장 가증스러운 위반이여! 여성에 대한
남자의 비열한 폭정이여! 결혼, 사회, 제도, 너희들을 증오한다! 죽도록 증
오한다![...]베네딕트는 속으로 외쳤다.¹²⁾

상드는 작품 『발랑틴』에서 남성인물 베네딕트의 입을 빌려 자신이 속한
남성중심사회에서 야기되는 폭정을 표출했다. 남성인물을 통해 사회의 부당
함을 토로하는 것이 당시 시대상황에서는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상드는
판단했을 것이다. 이것이 제도·관습과 마주하는 상드만의 방식이었다. 자신
의 신조와 사상을 표명하되, 대중들의, 그들이 비록 남성 독자라 할지라도,
독자들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하는 것, 그렇다고 전혀 비겁하지 않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 그것이 상드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세상을 대하는 방법이

11) 『이혼고백서』, p. 40.

12) George Sand, *Valentine*, Omnibus, 1991, p. 295.

었다.

한편 나혜석에게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따라 붙는데, 여성으로, 미술 전공 최초의 유학생, 최초의 서양유화화가, 최초의 유화개인전, 최초의 세계 여행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나혜석의 재능도 재능이겠지만, 그만큼 당시 여성으로는 물론 인간으로서 충분한 혜택을 누렸다는 것이다. 그녀가 조선의 제도와 관습의 불합리성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도전을 시작한 것은 이혼을 당할 당시, 그리고 이혼 후라고 할 수 있다. 결혼 전은 물론 결혼 생활 중에도 나혜석과 조선의 제도·관습은 별개의 문제였다. 당시 구애한 김우영에게 나혜석이 내건 결혼 조건들¹³⁾은 이를 증명한다. 게다가 신혼여행 중에 남편 김우영에게 폐렴으로 요절한 자신의 애인 최승구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도록 요구한 나혜석의 행동은 당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물론이고 현재의 기준에서도 가히 파격적이라 하겠다. 나혜석의 관습과 제도에 대한 구체적 비판은 외국유람과 파리 체류기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는 이것이 관습과 제도에 대한 항거인지 나혜석 자신은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연애는 진보된 사람들의 행위가운데 하나라고만 생각했다.

[...] 나는 결코 내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 즉 C(최린)를 사랑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나이다. 오히려 남편에게 정이 두터워지리라고 믿었사외다. 구미 일반 남녀 부부 사이에 이러한 공공연한 비밀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중심 되는 본 남편이나 본처를 어지하지 않는 범위 내의 행동은 죄도 아니요, 실수도 아니라 가장 진보된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¹⁴⁾

나혜석은 ‘진보된 문화’를 받아들였다고보다는 그 ‘진보’를 자신의 개인적 연애사건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즉 자신의 사적 연애사건

13) ‘일생을 두고 지금과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오.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마시오. 시어머니와 진실 딸과는 별거케 하여 주시오.’

- 『백만 송이 장미』, p. 22.

14) Ibid., 33쪽.

을 서양의 보편적 문화적 양태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고 합리화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문화에 대한 단편적이며 왜곡된 시각이다. 나혜석의 고백대로 부부사이의 외도문제는 공공연하지만 어쨌든 ‘비밀’이었다. 그러나 나혜석은 이를 ‘비밀’로 하지 않았고, 서양의 앞선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착각했다. 서양문화를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해석하여 이를 잘못 적용시키는 것은 당시 시대상황이 가져올 수 있는 과도기적 현상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프랑스 여인 조르주 상드는 사랑에 있어서는 정절을 중요하게 여겼다. 상드는 아들 모리스에게도 이 정절을 강조¹⁵⁾했는데, 앙드레 모르와에 따르면, 남녀 혹은 부부사이의 이 정절을 상드는 ‘신조’로 삼았다.

Elle[George Sand] conseillait la fidélité, ce qui peut surprendre, mais la fidélité par l'amour, ce qui avait toujours été sa doctrine.

느닷없을 수 있겠지만, 그녀(상드)는 정절을 권했다. 사랑에 있어서의 정절은 늘 상드의 신조였다.¹⁶⁾

조르주 상드와 나혜석은 서로 처해진 상황은 유사했지만, 그 상황을 대하고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달랐다. 기본적으로 젠더로 여성을 받아들이는 태도부터 상이했다. 나혜석은 ‘경희도 사람일다. 그 다음에는 女子다. 그러면 女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일다.’¹⁷⁾라고 작품을 통해 여자이기 전에 사람임을 주장

15) 사랑 없는 결혼, 그것은 종신으로 노예선을 타는 것이지... 난(상드) 네(아들)가 최근에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지. 너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결혼 생활에 충실하겠다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 사랑할 때는 충실함이 요구된다. 물론 잘못된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을 믿어야 한다. 진실함으로 맹세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행복하지.

Le mariage sans amour, ce sont les galères à perpétuité... Je[Sand] te[filis] entendais dire, il n'y a pas longtemps, que tu ne te croyais pas capable d'aimer toujours, et que tu ne répondais pas d'être fidèle dans le mariage. [...] Quand on aime, on est persuadé qu'on sera fidèle. On peut bien se tromper, mais on le croit, on en fait serment de bonne foi, et on est heureux aussi longtemps qu'on persiste.

- André Maurois, *Lélia ou La vie de George Sand*, Hachette, 1952, p. 402.

16) Ibid., p. 402.

했다.

그러나 상드는 1830년 첫 작품 『앵디아나 *Indiana*』를 발표하면서, 한 서신에서 “여자는 항상 여자다”¹⁸⁾라는 자조적 표현을 하는데, 이는 남성 중심적 구조 속에서 여자는 어쩔 수없이 여자의 삶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상황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에 상드는 오로르 *Aurore Dupin*¹⁹⁾의 삶이 아닌 작가 상드의 삶을 선택하면서, 당시 여성을 억압하는 관습과의 결별을 고한다. 그 과정에서 상드는 ‘여자는 항상 여자’지만 여성이라는 관습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작가로서의 삶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예들만 보아도 조르주 상드와 나혜석이 세상을 대하는 방법과 그것에 대항하는 방식이 서로 매우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나혜석의 방식이 자기 자신만의 구제 혹은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조르주 상드는 자신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의 구원을 염두에 두었다. 자신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드의 방식은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일 수 있었다.

상드와 나혜석과 차이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약자에 대한 타고난 보호본능과 연민, 그리고 지나친 책임의식이라 할 수 있다. 상드는 단지 마음으로의 애정만이 아닌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약자들에게 주려고 노력했고, 이로 인해 정작 자신은 고된 노동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Obligée de m'endetter pour sauver les autres, je[Sand] me suis
trouvée dans la position la plus difficile.

17) 「경희」, 70쪽.

18) 1830년 편지에서 오로르는 문학 세계로의 자신의 첫 데뷔에 대해 빈정대는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자는 늘 여자다”.

Dans une lettre de 1830, Aurore parle avec sarcasme de ses débuts dans le monde littéraire, [...]. «Une femme est toujours femme», [...].

(Dr S. A. Dranch (éditorial), *Femme et/ou Auteur? le cas George Sand (Sand correspondance, I 704-707)*), 1983, p. 31, 재인용.)

19) 조르주 상드의 본명.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빚을 저야하다보니 나(상드)는 지극히 힘든 상황에 처했었죠.²⁰⁾

상드의 이러한 약자에 대한 지나친 연민은 바로 그의 타고난 특별한 책임감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연민과 책임감은 젠더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상드에게 있어서 약자란 젠더를 불문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드는 여성의 권익만을 위해 투쟁했던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화가와 작가로 나혜석과 조르주 상드는 남성중심의 제도·관습 하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느꼈던 시대적 상황은 유사했지만, 그녀들이 그 구조와 사회에 저항하는 과정과 방식은 달랐다. 그럼에도 두 여성 모두 각자의 시대와 나라에서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나혜석과 조르주 상드의 교육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 각자의 시대에 있어서 ‘교육’은 기득권 세력인 남성들의 전유물이던 때였다. 그런 시기였던 만큼 나혜석과 상드에게 있어서 여성교육의 필요성의 인식은 절실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관의 연구는 그들의 세계관을 알아보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것이다.

III. 여성의 교육관

조르주 상드는 당시 여성 교육기관인 수녀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나혜석은 일본유학까지 마쳤으며, 또한 유럽까지 가서 새로운 문물을 직접 경험했던 당시로는 드문 교육혜택을 받은 여성이었다. 이 두 여성은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익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교육이 그나마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단초라고 생각했다. 먼저 나혜석은 「경희」를 통해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20) George Sand, *Correspondance Tome IX (No. 4182)*, Texte réunis, classés et annotés par George Lubin, Garnier, 1964-1991. p. 95.

이 세상에는 계집애라도 배화야 한다니까요.[...] 김 부인은 과연 알았다. 공부를 만히 할수록 존대를 받고 월급도 만히 받는 거슬 알았다. [...] 김 부인은 인재부터는 의심 업시 확실히 자기 아들이 경희를 왜 일본까지 보내라고 애를 쓰던 것 지금 世上에 는 女子도 男子와 긋히 만히 가라쳐야 할 거슬 알았다.²¹⁾

‘내(사돈마님)가 녀학생을 잘못 알아왔다. 정말 이 집 딸과 갖히 계집애도 공부를 식혀야겠다. 어서 우리 가거 내우식히든 손녀 딸들을 내일뵈히 學校에 보내야겠다’고 꼭 결심을 했다.²²⁾

나혜석이 지닌 교육의 이유와 목적은 여성이 사람으로 대접받으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평등과 사회 정의는 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조르주 상드의 교육관²³⁾과 동일하다. <학지광> 13호(1917년 7월 도쿄에서 발행)에 실은 ‘잠감雜感’이란 제목에, 부제는 ‘K언니에게 여與함’²⁴⁾이란 글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나혜석의 교육에 대한 목적을 살펴볼 수 있다,

언니! 나[나혜석]는 허영이 있고, 욕심이 있는 자라야 공부도 잘하고, 대사업을 이루는 자라 하오. 나폴레옹이나 비스마르크에게 만일 성공이란 허영심과 위인 될 욕심이 없었던들 어찌 백 천 년 후세를 전하여 기억만幾億萬 사람의 뇌 속에 기억을 삼았으리까.

[...]

21) 「경희」, 36-37쪽.

22) Ibid., 38-39쪽.

23) 제2제정 하에서 상드는 소설이나 언론에 발표된 글을 통해 사회적 평등과 정의에 대한 견해를 끊임없이 표명하고자 하는데, 상드는 사회, 경제, 소유권의 보다 심층적 개혁을 기대하지만 일단은 교육이 그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Sous le second Empire, ses romans, mais aussi les propos tenus dans la presse, continuent de faire entendre des idées d'égalité sociale et de justice dont le levier est l'éducation, en attendant une réforme profonde de la société, de l'économie, de la propriété. - Martine Reid, Bertrand Tillier, *L'ABCdaire de George Sand*, Flammarion, 1999. p.109.

24) 이구열, 「나혜석」, 서해문집, 2011, 74쪽 참조.

언니! 어서 공부해 가지고 사업합시다.²⁵⁾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여성도 사람다운 생활을 해야겠다는 것에 욕심을 내자”²⁶⁾는 것이다. 즉 “여성도 사람 될 욕심을, 외국서 배운 학문을 일본인들이 일본화 하듯이 조선화할 욕심을, 활동할 욕심을 갖자”²⁷⁾는 것이다. 타당하고 현실성 있는 주장이라 하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혜석에게는 서양 문화에 대한 비판의식이 부족했다. 나폴레옹과 비스마르크도 적절한 본보기는 아니었다. 그들은 허영심·성공·(남성들의) 영웅 등의 모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여성의 삶을 개선하고 평등과 정의의 실현의 문제와는 그다지 관련 없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나폴레옹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민법 제정으로 인해 오히려 여성들의 삶을 고단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나혜석에게는 여성교육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찰은 없었던 듯하다. 나혜석 자신이 교육에 있어서는 불평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나혜석은 교육의 중요성은 인지했지만,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수단으로만 인식했던 듯하다. 즉 ‘존대’를 받고,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생활수단의 방편정도로 여겼다는 것이다.

반면 조르주 상드는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기존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과 개선의 필요성을 체감했다.

L'infériorité morale attribuée à la femme dans les oeuvres philosophiques et dans la Bible l'a toujours révoltée. Elle n'y voit que le résultat d'une mauvaise éducation.

철학 서적들과 성서에서 드러나는 여성에 대한 정신적인 폄하는 늘 상드를 분노하게 했다. 상드는 그것이 잘못된 교육의 결과일 뿐이라고 여겼다.²⁸⁾

25) Ibid., 78-81쪽 참조.

26) Ibid., 79쪽.

27) Ibid., 79-80쪽 참조.

28) Francine Mallet, *op. cit.*, p. 177.

상드가 생각하기에 상드시대교육이란 여성들에게 무용한 것들뿐이었다. 상드는 이를 『발랑틴』의 발랑틴의 입을 통해 고발했다.

L'éducation que nous recevons est misérable ; on nous donne les éléments de tout, et l'on ne nous permet pas de rien approfondir. On veut que nous soyons instruites ; mais, du jour où nous deviendrions savantes, nous serions ridicules. L'éducation si bornée de nos aïeules valait beaucoup mieux ; du moins elles savaient tricoter.

우리가 받은 교육은 보잘 것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에 대해 개론적 지식은 제공했지만, 우리에게 절대로 깊이 파고들어가지 못하게 하죠. 그들은 우리가 교육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너무 똑똑해지면, 우리는 비웃음을 살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받은 아주 제한된 교육이 훨씬 나았어요. 적어도 할머니들께서는 뜨개질이라도 하실 줄 알잖아요.²⁹⁾

깊이 없는 피상적 교육보다는 차라리 뜨개질이 실제적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발랑틴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제대로 된 학문, 다시 말해서 학문이라는 것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고, 여성이 학문을 접하거나 활용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오히려 여성이 학문을 할 경우 “우스꽝스럽다”고 비웃음을 당할 뿐이었다. 그나마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익힌 기술이나 능력으로 경제 활동을 하려해도, 미슐레의 주장대로 ‘차라리 굶어죽는 편이 미덕’³⁰⁾이라고

29) *Valentine*, pp. 219-220.

30) 15년 전 나는 한 젊고 사랑스러운 아가씨의 방문을 받았다. 그 아가씨의 부모는 지방에서 파리로 그 아가씨를 보냈던 것이다. 그녀에게 수업이라도 할 일자리를 얻어주면서, 그녀가 돈을 벌도록 도와줄 수 있는 친척집에 그 아가씨를 보낸 것이다. [...] 나는 그 아가씨에게 주저 없이 말했다. 파리의 거리에서 먹을 것을 뒤쫓아 다니느니 굶어죽는 것이 낫다고. 그러니 당장 오늘, 부모님에게로 돌아가라. 아가씨는 내 충고를 따랐다.

Il y a quinze ans, je[Michelet] reçus la visite d'une jeune et aimable demoiselle que ses parents envoyaient de la province à Paris. On l'adressait à un ami de la famille qui pouvait l'aider à gagner sa vie en lui procurant des leçons. [...] Je lui dis sans hésiter : «Il vaut mieux mourir de faim que de courir le cachet sur le pavé de Paris. Je vous engage, mademoiselle, à retourner, non

했던 시대였다. 대혁명 후에 여성의 교육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단지 형식에 그쳤을 뿐이었다. 이에 상드는 지금까지의 교육과는 달리, 교육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야하고, 교육의 내용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교육의 기회는 남녀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드가 궁극적으로 비판하고자 했던 것은 잘못된 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교육의 부정적 결과이다. 즉 적절하지 못한 교육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도 포함되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해칠 수 있는 일종의 병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상드의 주장이다. 이는 『발랑틴』에서 베네딕트의 고백을 통해 증명된다.

Hélas! l'éducation a corrompu mon esprit ; les vains désirs, les rêves gigantesques ont faussé ma nature et détruit mon avenir. La résignation et la patience, ces deux vertus du pauvre, je les ai perdues : [...] C'est pour moi la terre d'exil que cette terre fécondée par vos sueurs ; ce qui fit votre richesse est aujourd'hui mon pis-aller.

아아! 슬프도다! 교육은 내 정신을 타락시켰다. 헛된 욕망, 거대한 꿈들이 내 본성을 비뚤어지게 했고 내 미래를 파괴했다. 체념과 인내, 가난한 자들이 지닌 이 두 가지 미덕을 나는 잃어버렸다. 당신들의 노동으로 풍요로워진 이 땅이 내게는 유배의 땅이다. 당신들의 부유를 가져온 땀이 오늘 날 내게는 최악의 것이다.³¹⁾

상드는 지금까지의 교육내용으로는, 특히 여성에게 행해진 교육방식으로는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상드는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서 독립된 여성으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교육에 대한 단점과 앞으로 행해져야 할 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했다. 상드의 이러한 개선의 요구는 여성 교육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pas demain, mais aujourd'hui, chez vos parents. [...]》

Elle suivit mon conseil. - Jules Michelet., op. cit., pp. 55-56.

31) *Valentine*, p. 280.

Depuis Molière, ou du moins Chrysale, l'éducation des filles n'a pas fait de progrès. Les ouvrages et les articles de George Sand basés sur son expérience personnelle contribuent à transformer et améliorer la situation. En 1852, l'instruction obligatoire pour les filles passe, sinon dans les faits, du moins dans les lois.

몰리에르 이래로, 혹은 적어도 크리잘 이래로 여자 아이들의 교육은 진보하지 않았다.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조르주 상드의 작품들과 논문들은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1852년에 소녀들의 의무교육이 법제화된다.³²⁾

상드는 단순히 글이나 말로만의 개혁이 아닌, 행동과 실천을 통해 개혁의 가능성을 증명해보였다. 비록 여성의 의무교육에 대한 실질적 실현까지는 기대할 수 없었지만, 여성교육에 대한 제도가 성문화되기까지의 상드의 업적이 컸다는 것은 분명하다. 상드의 작품들이 독자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 이유는 그 작품들이 작가의 생생한 경험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이 여성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 방편이 된다는 생각에 있어서는 나혜석과 조르주 상드의 의견이 일치함을 보인다. 그러나 나혜석은 그 공부의 출발이 '허영'과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긍정적 의미에서의 '허영'과 '욕심'이었지만, 결국 '허영'에 기반을 둔 교육에 대한 가치기준은 그녀가 이상적 예로 제시했던 나폴레옹처럼 그녀를 몰락의 길로 이끌었다.

조르주 상드는 교육에 대한 기본가치를 보통의 '인간적 삶'에 두었다. 남성과 여성의 젠더의 범주를 넘어서서, 사회적 약자들도 올바르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통해 기본적인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구현에 교육의 가치를 두었다. 그런데 나혜석의 삶의 기준은 처음부터 지나치게 높았다. 이는 나혜석 자신이 누렸던 특혜로 인해 당시 보통사람들의, 일반 여성들의 삶을 체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프랑스에서 최린과의 불륜사실이 알려진 후,

32) Francine Mallet. op. cit., p. 186.

나혜석은 그동안 누렸던 모든 혜택을 박탈당하게 되고, 마침내 사회의 가혹한 시련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시련들을 이겨내거나 방어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나혜석 자신이 교육에 대한 뚜렷한 자기만의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혜석과 조르주 상드의 ‘예술관’에 대해 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 본 ‘제도·관습에 관한 견해’와 ‘교육관’에서는 외부적 상황이 그들에게 미친 영향과 그로인해 성립된 두 여성의 세계관을 보았다면, ‘예술관’에서는 그들의 정신적 삶을 형성하고 있는 내적 상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술관의 비교는 나혜석과 조르주 상드의 서로 다른 삶의 행보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IV. 예술관

나혜석이 한국(당시는 조선) 서양화에 선구자가 된 것에는 자신의 재능도 있었지만, 나혜석의 둘째 오빠 나경석의 도움이 컸다. 나경석은 ‘서양 문화 수용에 깊은 이해와 사명감을 갖고 있던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청년’³³⁾이었다. 나혜석은 이러한 오빠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일본 유학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또한 나혜석은 유럽 곳곳을 여행하고, 파리에서는 8개월간 체류하는 특별한 경험 덕분에,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았고, 당시 조선의 신문과 잡지는 계속해서 그녀를 인터뷰하게 된다. 그 인터뷰가운데 <매일신보>에서 나혜석은 예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예술은 내[나혜석]의 일평생의 위안이요, 또 생활이 전부라고 하여도 과연
언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취미요, 나의 직업입니다.³⁴⁾

예술이 나혜석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정작 그림을 통해 나혜석이

33) 이구열, 『나혜석』, 서해문집, 2011, 69쪽 참조.

34) Ibid., 329쪽.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나혜석이 예술과 화가로서의 활동에 대해 무한한 애정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글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지만 과연, 그림을 통해 그녀가 표현하고자 했던 전언傳言은 명확하지 않다.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독일의 여성 화가이자 판화가, 조각가이기도 한 케테 콜비츠 Käthe Kollwitz(1867-1945)의 작품은 그녀가 작품을 통해 나타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콜비츠는 “나의 작품행위에는 목적이 있다. 구제 받을 길 없는 이들, 상담도 변호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의 인간들을 위해 나의 예술이 한 가닥 책임과 역할을 담당했으면 싶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예술관은 콜비츠 자신의 작품에 충분히 드러나 있다.

그러나 나혜석의 작품에는 당시 자화상, 조선의 풍경들, 혹은 그녀가 목격한 구미 여성의 모습,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어린아이 손을 잡고 있는 여성 등, 단순히 그 시대 풍물정도만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물론 모든 예술 작품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혜석이라면, 적어도 그녀의 시대였다면, 충분히 시대적 아픔을 다룬 소재나 작가의식을 알 수 있는 작품이 있어야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여성 ‘최초의 서양화가’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과도기적 상황의 한계를 인정한다 해도, 나혜석의 작품에는 작가적·철학적인 고뇌나 의무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다.

나혜석은 인생 최대 고비를 겪고 그 모든 비극적인 상황들을 뒤로 한 후에, 금강산 해금강의 총석정이라는 곳에서 대작 두 점을 포함하여 약 30점의 유화를 완성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기거하던 집의 화재로 그 중 열점 정도만이 소실을 면했다.³⁵⁾ 만일 그 불타버린 작품들 가운데 그녀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다면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미술전에서 나혜석의 ‘정원’이 특선을 했을 때, 윤희순(1906-1947, 미술비평가, 미술사가)은 나혜석을 대신해 예술가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³⁶⁾

35) Ibid., 390쪽 참조.

36) Ibid., 389쪽 참조.

열정의 예술에서 이성의 예술로 전환하는 과도기 생산이라고 보겠다. 조선의 예술가는 불행하다. 여류 예술가는 더욱 불행하다. 씨(나혜석)에게 동정하는 것은 조선의 예술을 동정하는 것이 된다. 씨의 작품을 대할 때에 억제치 못할 애수와 동정, 이것은 아마 보는 사람의 공통된 정서일 것이다. 씨는 여기서 위축하여버리면 아니 된다. 도피하여도 안 된다. 여인 화단의 선구자인 씨의 일거일동에 얼마나 귀중한 가치와 책임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한다. ‘정원’의 구도는 전년의 ‘낭랑묘’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균형과 안정이 있다. 그러나 ‘정원’에서는 차디찬 이성에 가라앉은 열정이 자칫하면 식어질 듯한 우울을 보여준다. 도피, 안일, 침정沈靜 등의 싸늘한 공기가 저회하고 있음을 보겠다. 이러한 자세는 현 조선의 정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조선은 이런 예술을 요구치 않음을 알아야 한다. 씨의 새로운 활약이 있기를 기대한다.³⁷⁾

만일 나혜석이 윤희순의 충고처럼 선구자로서의 ‘책임’과 ‘가치’를 지니고, 먼저 여성적 삶보다 화가로서 삶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었다더라면, 후에 나혜석은 자신이 원하던 여성으로서의 삶을 획득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나혜석은 우선 여성인 자신의 삶에 주목했고, 예술 활동의 중심에도 나혜석 자신만이 존재했다. 이 점이 조르주 상드와 크게 다른 부분이다. 조르주 상드는 자신의 첫 작품 『앵디아나』를 통해 자신이 글을 쓰는 목적과 이유를 밝혔다.

[...], je[George Sand] le répète, j'ai écrit *Indiana*, j'ai dû l'écrire ; [...]. [...] ; car le malheur de la femme entraîne celui de l'homme, comme celui de l'esclave entraîne celui du maître, et j'ai cherché à le montrer dans *Indiana*.

되풀이해 말하는데, 나(상드)는 『앵디아나』를 썼고, 써야만했다. 왜냐하면 노예의 불행이 주인의 불행을 초래하는 것처럼, 여성의 불행은 남성의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앵디아나』에서 보여주려고 노력했다.³⁸⁾

37) Ibid., 389쪽

38) George Sand, *Indiana*, Garnier, 1962, pp. 19-20.

인용문에서처럼 상드는 당시 여성의 비참한 삶과 불행을 드러내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불행에서 야기되는 남성의 불행을 막기 위해, 즉 여성과 남성의 현실적 문제들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양성 모두가 불행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썼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젠더 사이의 불평등으로 야기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배자와 피지배자사이의 권력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켰다. 조르주 상드는 나혜석과는 달리 첫 작품부터 작가로서의 의무와 책임, 그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Loin d'être une suffragette, elle veut seulement garder sa dignité de femme :《Et [...] les femmes ne comptent, ni dans l'ordre social, ni dans l'ordre moral. Oh ! je[Sand] en fais le serment et voici la première lueur de courage et d'ambition de ma vie ! je relèverai la femme de son abjection et dans ma personne et dans mes écrits, Dieu m'aidera. Adieu les ignobles passions et l'imbécile métier de dupe.》

참정권을 주장하는 여성이라기보다는 상드는 단지 여성의 존엄성을 지키기를 원한다.《[...] 여성들은 사회적 질서에서도 도덕적 질서에서도 중시 받지 못한다. 오! 나(상드)는 그렇다고 맹세한다. 그리고 내 삶의 용기와 야망의 첫 번째 빛이 여기 있다. 나는 나의 인물을 통해, 나의 글을 통해 여성의 비참함을 부각시킬 것이다. 신은 나를 도울 것이다. 역겨운 수동적 삶과³⁹⁾과 속고만 사는 바보 같은 일들에 작별을 고한다.》⁴⁰⁾

인용문은 상드가 여성의 입장에서 본 남성중심으로 형성된 관습, 규율 그리고 법 등을 포괄한 모든 것들에 대한 우회적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백을 통해 자신의 문학과 삶의 예술관과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상드는 글쓰기를 통해 인간 불평등은 모두의 불행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다. 남성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세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여러 불평등한 제도들을 유지하고 보완해왔지만, 결과적으로

39) George Sand, *Valentine*, Omnibus, 1991, p. 295.

40) Francine Mallet, op. cit., p. 178.

그러한 제도는 남성들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상드의 주장이고, 이러한 통찰력은 상드 스스로가 소위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이었기에 가능하다 하겠다. 사회적 약자들의 불행이 강자들의 불행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강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르주 상드에게 있어서 문학은 낡은 사회를 더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실천의 장이었다. ‘낡은 사회를 더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⁴¹⁾는 여성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옛 전통과의 해체, 절연 혹은 단절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드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상드의 삶과 문학세계는 바로 이에 대한 실천의 여정이었다. 또한 상드는 동시대인들과의 연대감을 중요시 여겼다.

Quand ils[nos contemporains] s'égarrent, nous[les artistes] sommes troublés ; quand ils se perdent, nous désespérons ; quand ils souffrent, nous ne pouvons être tranquilles et heureux.

그들(우리 동시대인들)이 방황할 때, 우리(예술가들)는 불안하다. 그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절망한다. 그들이 고통스러워 할 때, 우리는 평온하고 행복할 수 없다.⁴²⁾

예술가는 동시대인들과 함께해야한다는 사실을 상드는 늘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여기서의 동시대인들이란 여성들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상드는 작품에서 여성의 우월적 모습과 남

41) 어째서 당신[남성]은 여성이,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남성들보다 대단히 우월한 존재인 여성이, 신체적 힘과 턱수염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러한 여성이 (...) 왜 당신은 남성들이 여성의 원칙들 속에서 부패하고 낡은 사회의 상태를 버꾼다면 더 훌륭하고 더 행복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성이 알고 있다는 것을 원하지 않나요?

《Pourquoi ne voulez-vous pas qu'une femme, c'est-à-dire un être infiniment supérieur à tous les hommes du monde, sauf en ce qui concerne la force physique et la barbe au menton (...) pourquoi ne voulez-vous pas qu'une femme croie que les hommes peuvent devenir meilleurs et plus heureux en changeant l'état d'une société pourrie et décrépite dans ses principes?》- Ibid., p. 180.

42) George Sand, *La Petite Fadette*, Le Livre de Poche, 1984, p. 8.

성의 부정적 속성들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이는 남성중심의 전통 속에 짓눌려 평하된 혹은 숨겨진 여성의 능력을 재발견하고, 전통의 고질적 병폐를 고발하면서 다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희망에서 연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나혜석에게 있어서 예술 활동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다면, 조르주 상드에게 있어서 글쓰기는 사회변혁을 통해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했던 사명감의 발로이기도 했다. 나혜석에게는 이러한 예술가로서의 소명과 사명감이 부족했다. 만일 나혜석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자신의 재능과 혜택 받은 환경이 그저 자신의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시기가 도래했을 수도 있었다.

V. 결론

지금까지 프랑스 여성 조르주 상드와 조선 여성 나혜석의 삶과 작품들을 통해 그들의 제도와 관습에 대한 견해, 여성의 교육문제, 그리고 예술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제도와 관습에 대해서는 조르주 상드와 나혜석이 서로 비슷한 견해와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과 예술에 있어서는 두 여성 모두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그에 대한 관점과 소신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우선 조르주 상드는 여성에게 교육이 필요하지만 상드시대까지 여성이 받았던 교육은 무용한 것이며, 남성과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는 교육내용이 필요하고, 교육에 있어서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결국 남성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임을 상드는 알리고자 했다. 상드의 이러한 노력은 앞서 인용문⁴³⁾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여성들의 의무교육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하는데 기여를 했다.

나혜석은, 교육은 여성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편이 되고, 더 많은 월급과 사회적으로 더 나은 대접을 받기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나혜석은 스스

43) 각주 32 참조.

로 화실을 열어 여성들의 교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자 했지만, 당시 존재했던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 벽이란 먼저 나혜석 자신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유명해져 있던 상황이라, 그러한 여성에게는 배울 것이 없다는 것이었고, 다음으로는 그녀가 선택한 교육이 당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그림’이었다는 것이다. 분명 시대착오적 오류와 선택이었다.

예술관에 있어서 두 여성은 더욱 현격한 견해차를 보여주는데, 이는 예술에 관한 작가로서의 책임감, 목적의식의 유무로 드러난다. 조르주 상드의 경우 뚜렷한 예술관을 지니고 있었고, 작가 활동초반부터 이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바 있다. 즉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 약자들의 고통을 알리고, 결국에는 젠더의 한계를 넘어서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있어 자신의 작가로서의 활동이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작가적 소명의식을 알렸다.

그러나 나혜석의 경우, 그녀의 글에서도, 혹은 그림 작품을 통해서도 그러한 목적의식을 찾아 볼 수 없었다. 타고난 재능과 더불어 그 재능을 펼칠 기반이 마련되었던 여성으로서 나혜석은 윤희순의 충고대로 선구자로서의 책임과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의 재능을 통해 삶을 극복해가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했다. 나혜석에게는 작가로서의 소명의식이 부족했다. 작품행위는 나혜석에게 있어서는 그녀의 고백대로 ‘취미’이자 ‘직업’일 뿐이었다.

화가나 작가는 그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는 ‘특별한 직업인’이다. 그러나 나혜석에게는 당대 주목받은 여성화가, 더구나 선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목적의식이 결여되었다. 만일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나혜석에게 예술가로서의 뚜렷한 소명의식만 있었다면, 조르주 상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세계는 물론, 예술가로 가치 있는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나혜석, 『백 만송이 장미』, 오상출판사, 1997.
- _____, 『이혼고백서』, 오상, 1999.
- _____, 『나혜석 전집』, 이상경 편집교열, 태학사, 2000.
- _____, 『나혜석 작품집』, 오형엽 엮음,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8.
- 권오숙 외, 『그녀들은 자유로운 영혼을 사랑했다』, 한길사, 2011.
- 김진, 이연택, 『그땐 그 길이 왜 그리 좁았던고』, 해누리, 2009.
- 윤범모, 『첫사랑 무덤으로 신혼여행을 가다』, 다홍미디어, 2007.
- 이구열, 『나혜석』, 서해문집, 2011.
- 이상경, 『인간으로 살고 싶다』, 한길사, 2000.
- SAND, George, *Indiana*, Garnier, 1962.
- _____, *La Marquise*, Babel, Arles, 2002.
- _____, *La Petite Fadette*, Le Livre de Poche, 1984.
- _____, *Valentine*, omnibus, 1991.
- _____, *Correspondances*, - Texte réunis, classés et annotés par George Lubin, Garnier, 1964-1991.
- BARRY, Joseph, *George Sand ou le scandale de la liberté*, Seuil, Paris, 1982.
- DIDIER, Béatrice, *George Sand écrivain*《un grand fleuve d'Amérique》, puf, 1998.
- HAMMON, Bernard, *George Sand et la politique*, L'Hamattan, 2001.
- MALÉCOT, Claude, *Le Monde de George Sand*, C.M.N., 2004.
- MALLET, Francine, *George Sand*, Bernard Grasset, 1976.
- MAUROIS, André, *Lélia ou la vie de George Sand*, Hachette, 1952.
- MICHELET, Jules, *La Femme*, Calmann-Lévy, 1929.
- MOZET, Nicole, *George Sand écrivain de romans*, Christian Pirot(éditeur), 1994.
- _____, “Du romanesque sandien”, *magazine littéraire* No431 mai 2004.
- PLANTE. Christine, “Femme? la question inévitable”, *magazine littéraire* No431 mai 2004.
- REID, Martine, TILLIER, Bertrand, *L'ABCdaire de George Sand*, Flammarion, 1999.
- REID, Martine, “Une vie, mille histoires”, *magazine littéraire* No431 mai 2004.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Feminist View of the World
Between Na Hye-Sok and George Sand
- Focusing on Conscious Vocation of the Artist -

Cho, Ji-Sook

This paper is to make a comparative study between George Sand and Na Hye-sok through their lives and works. The research found that George Sand and Na Hye-sok had similar views about the institution and social system of their age. Both women were aware of importance and necessity of education and the arts but showed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ir beliefs in education and the arts.

George Sand found that education was an indispensable part of women's lives but found that education for women to the age of Sand was useless. For this reason she continued to assert a substantial reform concerning women's education. In addition, she argued that everyone should have been given the same opportunities regardless of gender or class. Na Hye-sok, meanwhile, looked at women's education in a more realistic perspective, that is to say to make money.

The two women showed remarkable differences in the view of art. This is evident from the presence of a responsibility and a sense of purpose as an artist. George Sand was imbued with a sense of purpose and clarified her own belief at the beginning of her activities as a writer. She wanted to inform the suffering of the weak through her writing and to contribute to build a Utopia where everyone could be happy to live beyond the boundaries of gender.

However, Na Hye-sok did not reveal her own clear sense of purpose to her art activities. Art is not just a job - it's a vocation. Na Hye-sok was enthusiastic but didn't have a sense of purpose. She should have had a vocation and a sense of purpose.

Na Hye-sok was lacking of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as a pioneer of Western painting. If there were a distinct vocation and a sense of purpose to Na Hye-sok as an artist, she would have left a trail as valuable as that of George Sand.

Key Words

institution, social system, education, vocation, sense of purpose

논문접수일: 2015년 10월 23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08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09일